



## 민족의 명절을 맞아 선생님들과 어머님들께 새배를 드렸습니다!



▲ 지난 2월 5일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설 행사로 문상봉, 안학섭, 김영식 선생님께 새배를 드리고 함께 떡국을 먹으며 덕담과 안부를 나누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과 민기협어머니들, 회원들, 또 아이들까지 만남의 집이 시끌벅적 떠들썩한 가족모임이었습니다. 이른바 '필화사건'으로 황당한 일을 겪고 계시는 양심수후원회 감사이사이기도 한 강정구 교수님으로부터 재판내용의 문제 지점을 조목조목 들으며 공부도 하는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 · 목 · 차 ·

우리의 주장 권오현 • 2 / 출소장기수를 찾아서 • 안재구 선생 인터뷰 안전걸 • 4 / 추모글 • 재일교포 양심수의 영원한 어머니님 고이 잠드소서 회장단 • 9 / 감옥에서 온 편지 이승규 • 10 / 기고 • 전략적 유연성 유영재 • 12 / 취재 • 하이닉스 농성장지지방문기 흥세희 • 14 / 회원미담 • 새해인사 신현부 • 16 / 산행기 서미라 • 18 / 이련회원 편집부 • 20 / 일됩니다 • 22 / 시사민평 • 24 /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 25 / 이련일이 있었어요 • 27 / 재정 보고 • 33 / 화비를 내주신 분들 • 34

☎ 민기협 양심수후원회 151-812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전화 : (02)874-4063 전송 : (02)888-4470 홈페이지 : www.yangsimsu.or.kr 이-메일 : yangsimsoo@hanmail.net

# 학자적 양심마저 사법처리하는 박제된 냉전논리

- 강정구 교수의 학문연구는 무죄이다. 냉전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

권오현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대표

6.15공동선언 시대에도 반복 반공의 맹목적 냉전 논리는 오지부동이었다. 바로 강정구 교수에 대한 만경대 방명록과 통일내전론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하고 있는 공안당국의 집념이 그것이었다.

그 전형으로 공소장의 상투적인 머리글이 있다. ‘북한 공산 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대남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등이다.

공안검찰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이러한 냉전 공안시각은 시대의 흐름과 정세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 평가한 토대 위에서 규정한 것이 아님을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한 논리는 ‘태양은 지구를 돌아야하는 중세적 교의처럼 신성불가침이어서 다른 논리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음을 물론 이단(이적행위)으로 몰려야하는 냉전의 성역이 되고 있었다. 그 냉전 성역의 범망에 강정구 교수의 학자적 양심이 걸려들게 되었다.

지난 2월 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 14단독(판사 김진동)심리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두 필화사건 병합 공판에서 이미 여론재판까지 받아왔던 강정구 교수는 피고인석에 서 있어야 했다. 검찰은 기소요지에서 (피고인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서해교전 성격’, ‘통일전쟁론’, ‘주한미군에 의한 전쟁위기론’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이에 맞서 강정구 교수는 원고지 170매에 이르는 모두 진술서를 요약하여 냉전성역의 몰가치성을 과학적 논증과 객관적 실체를 통해 통박하였다. 강 교수는 성역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믿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

한 도전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 불가침의 영역으로 이데올로기 같은 맹목적 믿음에 기반하고 과학적 지식기반을 갖지 못한 허구가 지배하는 것이라며 학문의 기본은 이러한 (잘못된) 성역을 허용하지 않고 파헤쳐 진실과 진리를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한국사회에서의 성역은 분단과 냉전 때문에 생긴 ‘냉전성역’으로 극단적인 냉전 분단체제 아래 남북이 서로를 원천적으로 적대 또는 부정하며 상대방에 극단적인 덧칠을 가해 악마로 몰고, 자기 것은 절대적 선으로 미화하거나 신성시해오는 과정에서 형성된 누구도 감히 손댈 수 없는 성역, 신성불가침의 금기영역이라며 그 보기로서 6.25와 한국전쟁, 친일과 청산, 정통성 문제, 전쟁위기, 민간인학살, 주한미군, 한미관계, 연방제, 주체사상, 김일성, 김정일, 민족자주, 평화협정, 서해교전, 북방한계선 등을 꼽았다. 특히 자신의 전공분야인 ‘현대사’, ‘북한’, ‘평화와 통일’이 가장 냉전 성역이 많은 부분으로 참과 진실, 진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허구의 성역을 허물어야 한다고 했다. ‘냉전성역 허물기는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는 과제이면서 올바른 민족사 정리를 위한 장기 지향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자신의 논문이 필화사건으로 기소되고 재판 받음으로 자유로운 연구와 이에 대한 비판과 역비판 등 논쟁을 기본으로 하는 인문사회과학의 토양을 위축시켰으며 학문의 다양성을 훼손했다고 사법처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강정구 교수는 이어진 검찰의 직접 심문에서도 서해교전성격과 6.25의 침략전쟁론, 북한전쟁위협론의 허구성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특히, 이 땅에서의 전쟁위기론에서 냉전시기인

1968년 미국의 간첩선 푸에블로호 사건에서부터 오늘 까지 11번 가운데 미국에 의한 것이 9번이고 남과 북이 한번씩이라고 구체적 사건 사례를 들며 북한전쟁위협론과 주한미군 평화지킴이론이 진실이 아닌 가공적 상상체임을 남과 북, 한미일, 조중러의 군사비와 군사력 비교 등을 통해 증명해 내고 있었다.

이제까지 냉전법정에서 있었던 검찰과 강 교수 사이의 진실게임 같은 공방 모습을 보았다.

이미 '강정구 교수 사법처리 저지 및 학문의 자유 쟁취 공동대책위' 등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양심적 학자들이 주장했듯이 강정구 교수를 기소하여 법정에 세운 것은 적어도 세 가지 이유로 부당하며 마땅히 무죄판결되어야 할 것이다.

### 첫째, .....

**국가보안법에 의한 기소와 재판이 부당하다.**

위에서 인용한 공소장에 있듯이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특히 6.15공동선언시대 더 이상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가 아님은 물론 이남에 대한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하지 않고 있다. 남북 정상 의 상봉을 비롯하여 당국자회담,

심지어 6.15, 8.15민족대회에 당국자까지 함께하는 상대가 반국가단체일 수는 없다. 이미 남북은 서로의 체제, 제도, 사상, 이념을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했다. 이북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면 국가보안법의 존립명분은 사실상 사라지게 되고 실정법으로 살아있다해도 국가의 최고목표로 설정된 화해 협력과 자주통일을 합의한 조건에서 이미 사문화된 법으로 학문연구를 제단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 둘째, .....

**강정구 교수의 학문연구는 가공적 상상체와 객관적 실체를 밝히는 데 있었다.**

예로써 통일전쟁론의 개념구성 요소는 전쟁주체의 전쟁목적이라는 기준에 따른 규정으로 임의로 어떤 당위성 때문에 어느 한 쪽을 편향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냉전 성역에서 주장되고 있는 '미국예외주의'는 보편적 기준과 거리가 먼 것을 밝히고 있었다. 바로 일본의 역사왜곡이나 신사참배를 비판하고 중국의 동북공정 등 대국주의를 비판하듯 미국의 분단책임, 전쟁책동 등 비판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미국예외주의에 기반한 주한미군 불가피론의 허구를 허무는 것도 학자의 양심적인 연구과제이기 때문이다.

### 셋째, .....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학문 영역의 다양한 평가 해석, 설명은 서로간의 논쟁과 경쟁력으로 북돋아 창의성을 높여야하고 그러한 학문적 다양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강정구 교수의 전공은 현대사와 평화와 통일 등이 있다. 학문연구는 학문 안에서 비평과 역비평 등으로 검증 받는 것이지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없다. 더구나 강정구 교수의 연구결과가 냉전성역으로 가려졌던 실체적 진실을 밝힌데 대해서는 오히려 겸허히 받아들일 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장한다.

강정구 교수는 무죄이다. 냉전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

# “분단 · 미국에 저항하지 않는 시민운동은 ‘가짜’”

최장기 19년째 ‘보안관찰’ 대상자, 노 통일운동가 안재구 선생 인터뷰

안진걸 | 코리아포커스 기자 true@coreafocus.com



안재구 선생은 중학생 시절부터 평생을 분단체제와 외세에 맞서 투쟁 해왔다. 그는 88년부터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무려 19년째 보안관찰 처분으로 감시를 받고 있다. 2006.2.2 © 김흥구/코리아포커스

한국사회를 설명하는 수없이 많은 설명 중에 가장 호소력있는 단어를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분단’ 또는 ‘분단체제’를 꼽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은 ‘미국’ 또는 ‘외세’를 꼽을 것이다.

여기 평생을 분단체제와 미국에 저항하며 살아온 지식인이 있다. 저명한 ‘수학자’였던 안재구 선생(74, 경북대·동국대·숙명여대 전 교수)이 바로 그다. 최장기인 19년째 국가로부터 보안관찰(출소자임에도 국가가 안보상의 이유로 해당 시민을 감시하는 처분을 말함) 감시를 받는 사연도 들을 겸, 노 통일·사회운동가에게 최근의 통일운동, 시민운동에 대한 평가도 들을 겸 2월2일 그를 찾았다.

그는 수학계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친 수학자

(미·적분학 분야)였고, 안정적인 삶이 보장된 국립대 수학과 교수였다. 그러나 그는 ‘수학이나, 조국이나?’라는 갈림길에서 과감하게 ‘조국’을 택했다. 그 대가는 혹독했다.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반유신 활동을 선택한 그에게는 더 이상 수학을 공부할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박정희 독재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가입한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으로 그는 79년부터 88년까지 9년을 감옥에 갇혀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원래 ‘남민전’ 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이를 안 세계 수학자들이 집중적으로 탄원을 보내는 등 국내외 안팎의 구명운동에 힘입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일화는 유명하다. 옥살이 도중에 20년형으로 감형됐고, 결국 1988년에 9년 만에 가석방됐다.

그때부터 국가권력은 그를 무려 19년째 ‘보안관찰’하고 있다. 당연히 사면복권도 안됐다. 예전보단 나아졌다고 하지만, 지금도 2-3개월에 한번쯤 경찰로부터 동향을 파악하는 전화를 받고 있다. 국가권력은 여전히 그를 불온한 인물로 간주하고 감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그런 국가에 대해 “여전히 파시즘 폭압 국가”라고 비판한다.

그렇게 88년 감옥에서 나온 그는 수학자에서 완전히 ‘사회운동가’, ‘통일운동가’로 변신했다. 더 이상 수학을 가르칠 수도 없었다. 대신 그는 서강대, 경희대 등지에서 철학과 사회운동을 가르쳤다.

그리고 보안관찰 처분으로 당국의 감시를 받는 와중에도 그는 또 통일운동 조직을 결성한다. 이름은 ‘구국

전위’. 역시 당국은 그런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91년 남북합의서 체결 정신을 이어받아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전면화하자, 전국적인 통일운동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그의 통일운동 조직은 94년 당국에 의해 간첩단 사건으로 조작, 발표된다. 그 사건으로 그는 또 5년여의 옥고를 치른다. 최근 이 ‘구국전위’ 사건이 인구에 회자된 적이 있었다. ‘국민동생’으로 일컬어지는 배우 문근영씨의 외할아버지가 안재구 선생과 함께 ‘구국전위’를 주도한 류낙진 선생이었기 때문이다. 배우 문근영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외조부의 통일·민주화운동 전력에까지 이어진 것이었다.

안재구 선생이 ‘구국전위’ 사건으로 감옥에 있는 동안 97년 최초로 정권이 교체됐고, 99년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돼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다. 그는 평생 싸워 온 분단체제와 외세의 지배에 균열이 가고 한반도에서 평화와 공존, 화해와 통일의 기운이 높아지는 것을 목도했다고 한다.

이미 그때 그는 70이 다된 ‘노인’이 돼 있었다. 그렇게 몸은 늙었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청년이다. 조국분단과 외세에 대한 분노는 어느 청년보다 더 뜨겁다. 오히려 청년의 민족적·민중적 각성을 촉구하며 74세인 지금도 범민련 등 통일운동 단체와 각종 집회 현장을 누비면서 통일·사회운동에 열심이다.

그는 여전히 분단체제와 미국에 저항하는 것이 한국 사회운동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자 자신의 필생과제라고 말한다. “힘닿은 마지막 순간까지 분단체제와 미국에 저항하는 삶을 살 것이고 그것이 최고의 보람”이라고 결연하게, 동시에 행복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최근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해진 시민운동에 대해서

물었더니, “시민운동이 반부패, 권력감시, 시민권리찾기 등 잘하는 일이 참 많다”면서도 “그러나 진짜 시민운동이라면 반드시 분단체제와 미국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단체제와 미국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사회의 본질적 변화와 발전은 어렵겠는 얘기”라며 “개혁과 진보를 바란다는 시민운동이 그 문제를 외면하면 ‘가짜’나 다름없다”라고 덧붙였다. 시민운동이 역사적 안목과 민족사적 사명을 갖고 분단체제와 미국에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직접 몸담고 있는 통일운동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통일운동하는 사람들이 가장 욕심이 없이 민족을위해 헌신해야 한다”며 “그러나, 최근 통일운동 진영에 출세주의와 분열주의 같은 오류들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6.15 정상회담을 전후해 남과 북의 화해와 교류가 왕성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과정에서 통일운동을 자신의 출세와 연결시키고자 하는 사람, 또 통일운동을 자기 또는 자기 단체가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걱정이었다. 평생을 분단체제에 맞서 싸워 온 한 노 지식인의 쓴소리를 시민운동·통일운동진영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

다음은 안재구 선생과의 일문일답이다.

---

### 최근 근황은 어떠세요?

“수원에서 지내고 있고, 통일운동 단체 고문을 맡아서 종종 서울에 올라오고, 올해로 벌써 74세예요. 지난 시절 일제, 한국전쟁, 독재와 저항 등 별별 일을 다 겪었

는데 내가 살아온 역사와 운동에 대해서 자서전도 준비하고 있지요.”

**감옥에서 참 고생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살면서 3번 감옥에 갔는데요, 4.19이후 교원노조 운동에 참여했다 2달 만에 나왔고, 79년 남민전 사건으로 9년 정도를 살았죠.

그 다음엔 94년도에 구국전위 사건으로 5년정도 살았고요. 그 중에서 남민전 사건으로 9년 살 때 감옥이 정말 아주 고통스러운 곳이었어요.

마치 관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았지요. 0.75평에 갇혀 맨날 썩은 부식거리를 먹고, 운동도 30분밖에 못했으니 거의 죽음과 같은 시절이었어요. 처우개선을 위해서 엄청나게 투쟁했지요. 그렇게 전주교도소에서 1년, 광주교도소에서 5년, 대전교도소에서 4개월, 대구교도소에서 3년 있다 출소했어요. 내가 나올 때쯤에는 교도소 처우가 많이 좋아졌는데, 그게 다 감옥 안에서 죽어라고 싸운 사람들 때문이죠.”

**막내아들인 안영민씨(‘민족21’ 대표이사)가 94년 ‘구국전위’ 사건 때 함께 수감된 일도 유명합니다.**

“91년도에 남북합의서 체결된 후 전국적인 통일운동 조직이 필요하겠다 싶어 구국전위를 꾸린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막내 아들 안영민이는 조직원이 아니었어요. 그 때 영민이가 학생운동 수배자였는데, 당국이 우리 사건을 확대·조작하면서 조직원으로 포함시켜 발표한 것이죠. 영민이가 다니던 경북대생들을 만나 제가 생각하는 통일운동에 대한 강연을 한 적은 있었는데, 그걸 빌미로 우리 영민이를 감옥에 가둔 것이예요.”

**지금도 보안관찰 처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79년도에 남민전 사건으로 들어갔을 때 최종적으로 20년형으로 감형돼 살고 있었는데, 88년도에 가석방돼 나왔어요. 그때부터 보안관찰 처분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보안관찰 처분을 받고 있어요. 무려 30여년이 된 사건인데... 그 사건으로 88년부터 19년째 보안관찰 처분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도 2-3달에 한번 정도로 경찰들한테 동향을 파악하는 전화가 옵니다. 예전보다 감시가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좋은 일은 아니지요. 아마도 내가 최장기 보안관찰 처분자일 거예요. 지금도 나의 통일운동을 불온하게 생각하는 것이겠지요. 나에겐 이런 국가는 여전히 파시즘 폭압국가입니다.”

**배우 문근영씨 때문에 ‘구국전위’ 사건이 많이 인구에 회자됐었습니다.**

“문근영양 외할아버지 류낙진 선생 때문이었죠. 류낙진 선생은 남민전 동지는 아니고, 제가 남민전 사건으로 옥살이 할 때 광주교도소에서 만난분입니다.

그 후 출소해서 ‘구국전위’ 조직을 결성할 때 함께 주도적으로 했지요. 그러다 ‘구국전위’ 사건으로 같이 감옥에 들어간 깊은 인연이 있어요. 문근영양도 외할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로 훌륭하고 아주 견결한 분이었습니다. 평생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애쓰다가 돌아가신 분이지요”

**선생님께서 94년 연행돼 취조를 받던 남산 안기부터가 ‘유스호스텔’ 이 됩니다.**

“79년 남민전 사건 때는 경찰청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

행됐었고, 94년 ‘구국전위’ 사건 때는 남산 안기부로 연행됐었죠. 저도 지하에서 18일간 취조를 받았는데, 예전처럼 함부로 고문이나 때리지는 못했지만, ‘잠 안 재우기’ 고문과 혹독한 취조는 여전했지요.

그런 폭압과 파시즘의 상징이 유스호스텔로 바뀐다니 감회가 새롭긴 하지만, 건물이야 유스호스텔로 바뀌지만 중요한 것은 폭압과 파시즘의 본질이 바뀌었냐는 것인데, 지난 농민대회 때 농민 두명이 맞아죽는 등 파시즘의 잔재가 곳곳에 남아 있고 미국의 예속정권으로서의 불가피한 폭압의 본질이 여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예속 정권으로서의 본질이 바뀌어야만 폭압과 파시즘이 이 땅에서 진정 사라질 것입니다.”

### 평생을 분단체제와 미국에 맞서 싸워오셨는데, 어떻게 운동을 하게 되셨나요?

“청소년 시절, 특히 48년 조국 분단이 굳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막아야겠다고 운동을 하게 됐죠. 여전히 제 운동의 주제는 분단체제 극복입니다.

조국의 분단으로 인해 민족과 민중의 겪는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 제가 청소년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1952년도에 경북대에 입학해 졸업 후 교사, 교수 생활을 하면서는 전면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뒤에서 조용히 학생들, 동료 지식인들과 활동했지만, 76년 경북대에서 해직되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반유신 투쟁에 나서게 됐고, 결국 남민전 결성까지 이룬 것입니다. 남민전 사건으로 옥사한 이재문 동지, 사형당한 신항식 동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운동의 동력은 다시 한번 말하자면 ‘분단’입니다.”

### 그래도 수학자로 꽤 유명하셨고, 교수까지 포기하며 운동에 전념하는 게 어렵지않으셨나요?

“한국 전쟁 후에 먹고 살아야 하니까 공부도 하게 됐고, 결국 교사·교수까지 됐고 또 그것이 직업이다 보니 수학을 열심히 해 국제 학술지에 수학 논문도 여러 편 발표해 명성도 얻게 되고...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의 목표는 처음부터 ‘수학’이 아니라 ‘조국’이었어요. 특히 76년 박정희 독재정권의 폭압이 극에 달하고, 교수직까지 해직되었을 때 전 생각했어요. ‘수학이나? 조국이나?’. 당연히 전 제 인생의 목표였던 ‘조국’을 택했죠. 그후론 결국 감옥에 14년 넘게 갇혀 있게 되면서, 수학은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지요.

그러나 지금도 전혀 후회는 없습니다. 나는 힘닿은 마지막 순간까지 분단체제와 미국에 저항하는 삶을 살 것이고 그것이 내겐 최고의 보람이 될 것입니다”

### 최근 시민운동의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 사회·통일운동의 어른으로서 비평해 주신다면요.

“민주화 투쟁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시민운동으로 많이 갔어요. 시민운동은 반부패, 시민권리찾기, 권력감시 등 참 잘하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시민운동을 시민운동의 틀속에만 가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올바른 시민운동이라면 조국의 분단과 민족의 자주권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분단과 예속의 상황에서는 어떤 운동도 결국 분단과 예속이라는 한계에 부딪히고야 맙니다. 이 엄청난 조국 분단의 고통과 미국의 민족에 대한 침탈과 횡포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그런 시민운동은 전 감히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최근에 시민운동 진영이

6.15시대에 함께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 희망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민운동은 자신들의 운동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반드시 분단문제, 미국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으는 일을 같이 해야만 운동으로서 참다운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올해를 예를 들면 한국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평택 미군기지 확장 문제입니다. 평택 미군기지 확대에는 미국문제와 분단문제가 집약되었어요. 올해는 이 문제와 내내 싸워야 합니다.

반드시 미군기지 확장을 막아내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시민운동이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 통일운동에 대해서도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6.15 시대가 된 지금통일의 방법과 길이 예전에 비하면 활짝 열렸어요. 국민대중들의 남북화해와 통일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고요. 이제 통일운동도 모든 통일을 원하는 세력과 국민이 하나되어 통일운동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절대로 거스를 수 없는 남북화해,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최근 통일운동 하는 사람들 중에도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통일운동하는 사람들이 가장 욕심이 없이 민족을 위해 헌신해야 함에도 욕심이나 출세주의같은 것이 보인단 말이죠. 6.15시대로 남북이 활짝 열리고 통일운동하는 사람도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통일운동을 자신의 입신과 출세와 연결시키려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또 통

일운동을 자신이나 자기 단체가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열주의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 걱정입니다.

통일을 위해선 통일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 모여야 하는데,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연히 모아질 수가 없죠. 운동하려면 욕심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자기가 제일인줄 하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뱃속에서 나와서 출세해라고만 배워 왔는데, 통일운동마저도 그런 잘못을 저지르면 안되는 것이죠.”

### 결론적으로 ‘(사회)운동’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운동은 사람이 ‘뜻있게’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길게 살아야 7·80년인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뜻있게 사는 것인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어릴 때와 늙어서 흐릿해 질 때를 제외하면 7·80년도 제대로 살기가 어려운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렇다면, 더욱 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겠죠. 죽음은 인생의 결산인데, 그 인생의 결산에 즈음해서 어떤 보람과 영광이 있었는지 드러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인생이었다 해도 뜻있게 살아왔다면 보람과 영광의 결산이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국과 민족, 사회를 위해서 뜻있게 사는 것이 운동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음에 앞서 보람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sup>※</sup>

# 재일교포 양심수의 영원한 어머니 고이 잠드소서

회장단

조만조 어머니어머님께서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세상을 떠나신지 녀 달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평생 염원이셨던 국가보안법도 양심수도 없는 세상, 자주통일된 세상을 보시지 못하고 가신 일이 너무 안타깝고 슬프기만 합니다.

조만조 어머니어머님은 고난 받는 모든 양심수의 들도 없는 구원자이셨고 특히 통일염원을 안고 고국 땅을 밟았다가 수난 당했던 수많은 재일교포 양심수의 영원한 어머니이셨습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이시면서 정의감이 강하셨기에 모든 선한 사람들과 특히 고난 받는 양심수들에게 자애로운 어머니이셨지만 의인을 억압하는 독재 권력에겐 불같이 사나우시기도 했습니다. 양심수가 있는 곳 양심수와 관련이 있는 일이라면 경찰서, 검찰청, 안기부, 교도소, 법원과 법무부, 국회, 청와대 등 가리지 않고 다니셨고 수많은 미사와 기도회 집회장소에 참가하시면서 특히 재일동포 또는 일본 관련 양심수에 대한 간첩조작을 폭로 규탄하셨고 일본에서 오고 있던 ‘재일 한국인 정치범을 지원하는 회 전국회의’

관계자들에게 일일이 통역을 하며 재일동포 양심수 실태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1998년 재일동포 사건으로 수감되었던 김병주, 서순택, 김장호, 손유형 선생님까지 마지막으로 모두 석방하는데 헌신을 다하셨습니다.

이처럼 어머니께서 이루어내신 양심수 석방운동과 반독재민주화운동은 길이 빛날 것입니다.

어머님께서서는 1922년 2월 22일 경남 함안에서 태어나시어 부모님을 따라 일본에 가셨다가 조국광복과 함께 귀국하여 고향에 계시다가 1970년 서울에 오시어 성북구 안암동에 사셨습니다.

1975년 재일교포로서 고려대학에 유학중이던 이 철

님이 중앙정보부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되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따님 민향숙 씨와 함께 구속되자 이제까지 평범하게 살아오셨던 어머니께서는 두 분의 무죄 석방운동에 발 벗고 나서셨습니다. 그리하여 따님이 먼저 석방되자 따님과 함께 이 철 씨를 비롯한 재일동포사건 양심수 석방에 헌신을 다하셨습니다.

마침내 1988년 10월 이 철 님이 석방되어 그 해 명동성당에서 김수환 추기경 주례로 결혼식을 올리는 기쁨과 감동을 맞기도 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서는 이러한 양심수 석방운동과정에서 재일동포양심수가족으로 그리고 1985년 12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창립 때는 공동의장으로 1989년 3월 민가협 양심수후원회가 발족하면서 운영위원을 맡으셨던 이 철 님께서 그 뒤 일본으로 돌아가자 운영위원, 부회장을 역임하시면서 비전향장기수 석방과 후원 사업에 헌신하셨습니다.

오늘 재일양심수동우회 주최로 어머니께서 살아오신 길을 기리고 추모하는 날을 맞아 다시 한 번 어머니의 자애롭고 빛난 삶을 되새기며 이 곳 양심수후원회원 모두의 뜻을 모아 추모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님, 고이 잠드소서 ✨

2006년 1. 29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 장 권오현

부회장 김지영 이기욱

追  
慕

권오헌 대표를 비롯한 양심 수후원회 동지 여러분!

그동안 국가보안법에 의하거나 노동자와 농민, 철거민 등의 정당한 요구를 갖가지 법률로 그리고 저같이 전쟁의 줄을 끊고자 범법하여 수감한 사람인 양심 수를 뒷받침을 해주신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소개를 하자면, 수원에 소재한 '다산인권센터'라는 인권단체에서 자원활동가로 일하다 '전쟁(폭력)에 대한 저항과 평화(비폭력)에 대한 고민'을 가지면서 '국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으로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저의 이러한 행동이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관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고 지금은 김천 교도소에서 만기일을 향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후원회에서 보내주신 영치금과 책은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워하시겠지만 보내주신 영치금을 비롯한 전액을 제가 단 1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규정상 영치금을 사용하기 위해선 지문을 날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치금이나 서적 그리고 등기우편이나 소포를 주소자가 받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해야 하는데 오직 지문

날인만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이런 관행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인권단체에 있으면서 지문날인제도가 국가가 각 시민의 생체정보인 지문을 국가안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열손가락에 스탬프를 찍는다는 것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인권적 요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병역을 거부하였던 저는 지문날인이 '부당한 명령'이며 비록 주민등록증은 있지만 이제

양심에 따라 지문날인을 거부하였고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서명으로서 본인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치소에 들어온 2005년 8월 2일, 저는 제 상식과 어긋난 풍경을 봐야했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물품을 영치하는데 그 확인을 위해서는 지문을 찍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니

요. 그래서 전 당연히 서명을 갈음을 해달라고 하였고 그 교도관은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등의

하였으나 결국 서명 으로 끝내면서 행형 시설에서의 지문날인 거부권을 요구하는 저의 투쟁이 시작 되었습니다.

그 후, 영치금을 이용하는 것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 서명 으로 같음하게끔 하는 성화가 있었지만 구 두로

영치금을 구매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이 교도소에서는 영치금 사용을 제외한 영치품(의 류, 서적 등), 등기, 소포, 택배, 접견 구치 품 수령 시 서명 으로 대체해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하였지만 답은 그들의 법대로 징수를 거부당하고 영치창고로 직행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날인이 필요없는 일반 우편 물과 면회, 그리고 담당자의 직권으로 받을 수 있는 서적 류 이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살 수도 받을 수도 없는 ‘경제제재’ 를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고 저와 끝없는 연계를 하는 다산인권센터나 병역 거부연대회의 등 에서 이 문제에 대응하고 안팎에서 배려와 응원으로 제 마음의 고통이 어느 정도나마 나아지고 있 습니다.

그렇지만 이 글을 쓴 날로 174일 째라는 긴 시간이 흐르면서 결정적인 성과없이 더 이상 버티나가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외부와 단절 되고 언제나 통제하는 교도소에서 혼자 저항해도 힘든데, 관심과 응원의 소 리는 멀어지는.. 나를 아는 사람들과 생필 품의 추가 지급 이외에는 뚜렷한 전향적 조치가 없이 방치 하다시피 하는 교도소,

그리고 국가 기구에 의해 저의 뜻은 이해하지 못하고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는가 등의 오해와 갈등 이 벌어지는 등, 동료 재소자 사이에서도 전 1평도 안되는 독방에 있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물론 수십년이나 독방에 수감되어 전향을 강요하는 육체적 정신적 폭력에도 자신의 양심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맞섰던 수많은 비전향장기수 어르신을 보면 저는 과거 보다 나은 환경에서 투쟁한다는 것이 축복이 면서,

객기라도 부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비인간적인 요소가 잔재했던 감옥이 그나마 살 수 있는 건 바로 비전향장기수 어르 신을 비롯한

# 언론, 정부의 간지(奸智)에 홀리다

전략적 유연성 합의, 한미동맹 해소로 한반도 평화체제수립으로 나아갈 때

유영재 | 평통사 미군문제팀장

동북아 분쟁 개입 주체가 누구냐?

한미양국의 외교부장관이 '전략대화'를 통해 지난 19일, 합의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두고 언론 보도가 엇갈리고 있다.

이른바 '총론'에 해당하는 한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는 대목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각론'에 해당한다는 동북아 지역 분쟁 개입의 주체문제를 두고서는 대부분의 언론이 그 주체를 주한미군으로 보도하고 있고, 소수 언론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실체는 무엇인가?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 본문을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 공동성명, 주한미군 동북아 개입 제한 없어

공동성명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한다는 전제 아래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강조 필자)고 되어 있다. 이 문장에서 동북아 분쟁 개입의 주체는 한국이다. 즉, 이 문장의 의미는 한국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 개입을 규제하는 문구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볼 때, 공동성명은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 개입에 대한 어떤 제한이나 제약조건도 없다. 한미양국 사이에 민감한 쟁점이 되어온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하여 한미양국의 최고위 외교당국자가 합의한 공동성명에 아무런 제한사항이 없다면 주한미군은 동북아 분쟁을 포함하여 전략적 유연성을 전면 허용 받게 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 외에 다른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이 문장이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 개입을 제약하는 조항이라고 해석하더라도 정부 당국자가 이와 관련한 '이행절차'를 새로 만들지 않고 그동안의 관례대로 하기로 했다고 답변했으므로 미국은 주한미군을 이라크로 차출할 때 한국에 일반적으로 통보했던 '관행'에 따라 동북아 분쟁에 개입할 때도 '통보'만 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장을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 개입을 제약하는 조항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 문장은 현실에서는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 개입을 제약하는 조항이 될 수 없는 것이다.

## 미국, "아무런 문제 없었다"

미국쪽의 반응도 이 문제를 판단하는 한 방증이 될 수 있다. 손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서로 깊은 이해가 있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중국 봉쇄를 핵심적 목적으로 하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이 제약받게 되었다면 미국쪽이 이런 만족감을 표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미국이 만족감을 표시한 것은 아무런 제약조건 없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이 허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주한미군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하여 전략적 유연성을 전면적으로 허용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사 '각론'이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 개입을 제약한 문구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

이렇게 볼 때, 이번 합의를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 개입을 제한하는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해석한 대부분의 언론 보도는 중대하고 명백한 오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오보의 근본 원인과 책임은 정부에 있다. 이런 문제점을 모를 리 없는 정부는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모호하게 하거나 전략적 유연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언론을 유도했다.

### 언론, 황우석 사태의 교훈 있었나?

그러나 문제는 거의 모든 언론이 의심스럽고 불분명한 점을 파고들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은 정부가 모호하게 말하는 것을 사실과 다른 방향으로 더욱 확실하게 굳혀 버리는 데까지 나아가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황우석 사태가 언론에 준 교훈인 특정한 '권력' 또는 '권위'에 대한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보도 태도의 부재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찌됐든, 이 문제의 파장을 줄이려는 외교안보 관계자들의 의도는 상당부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모든 언론이 이번 합의를 통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동북아를 포함하여 전면 허용된 것으로 보도했다면 파문이 훨씬 크게 일어났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정부 관계자들의 간지(奸智)는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로써 정부 관계자들이 얻은 것은 미국에 대한 신임과 난제를 교묘하게 처리하는 능력에 대한 상급자의 평가가겠으나, 우리 국민이 얻은 것은 무엇일까? 미국과 그 동조자들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증원군이 신속히 투입되는 효과를 떠들지만 이미 다수의 우리 국민은 북한이 남침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설사 남침한다 하더라도 우리 군의 독자적 능력으로 이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 주한미군 해외침략 전초기지 공식화

이렇게 볼 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전면 허용됨으로써 우리 국민이 얻게 되는 이익은 단 한 가지도 없다. 이제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전면 허용됨으로써 세계가 공인하는 주한미군 해외침략의

전초기지가 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은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항상적인 군사적 긴장과 근본적인 평화 위협의 부담만을 떠안게 되었다.

시설과 구역 제공 근거 없어진 주한미군 철수문제 공론화해야주한미군은 이제 전략적 유연성을 전면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그 성격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즉, 이제까지의 대북 방어적 성격에서 동북아를 포함한 세계 어느 곳으로든 언제든지 신속하게 출격할 수 있는 침략적 성격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로써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대북 방어 임무를 띠고 주둔해온 주한미군은 합법적인 주둔 근거를 벗어나게 되었다. 즉, 주한미군의 주둔은 불법이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은 이제야말로 주한미군에게 시설과 구역을 제공할 어떤 이유도 필요도 없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 국민의 현명한 판단과 냉정한 결심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

편집자주

편집자주- 이 글은 통일뉴스에도 기고된 글입니다.



# 하이닉스 농성장 지지방문기

홍세희 | 회원



1월 26일 설 연휴를 이틀 앞두고 권오현 회장님과 함께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서울 농성장을 지지방문 하였다.

하이닉스 본사에 처져있는 천막은 그리 추운 날씨가 아니었는데도 안으로 들어서자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노조 지도부는 마침 충청북도지사를 비롯한 범도민대책위원회 분들과 함께 회의에 들어간 상황이라 그 외 조합원 여러분들이 나와 회장님을 맞아 주셨다. 천막농성장 내부는 제대로 된 난방기구가 없어서 두꺼운 옷을 껴입고 있어야지만 겨우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정도였다. 농성장에서는 80~100여명의 조합원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고 식수도 직접 해결하고 있었다. 지도부를 만나기 전에 다른 조합원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는 2004년 10월에

노동조합을 결성하였고 2004년 12월에 전면파업을 하였다. 그 후 사측과 여러 차례 교섭이 있었지만 사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진전되는 부분은 없었고 결국 12월 말 사측은 노동조합 결성을 이유로 노조가 만들어진 회사들과 계약해지를 단행 하였으며 결국 12월 25일 직장폐쇄를 당하고 2005년 1월 1일 조합원들이 정리해고를 당한 상황이었다.

그 후 2005년 7월 21일 대전지방노동청은 사내하청지회 성훈, 인화, 에프엠텍 3개업체가 100% 명백한 불법 파견임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사측은 이러한 해당기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 현재 1년하고도 2개월의 기간동안 청주와 서울에서 천망농성 중에 있으며 서울에서는 15일차(1월 26일 당시) 상경투쟁 중이었다.

노조 대의원 김기철씨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고초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다. 10년째 근무를 해오시던 김기철씨는 12시간 맞교대 근무에 한달에 두 번은 24시간 철야작업을 하는데도 임금은 160만원으로 정규직의 5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셨다.

임금 외에도 비정규직이 받는 이런저런 차별대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다. 김기철씨는 7살, 4살 난 아이와 부인과 함께 살고 있는데 1년 2개월째 일을 하지 못하고 천막농성을 하느라 생계는 부인이 일을 하는 것으로 간신히 유지해 나간다고 하셨다.

노조에서 회계감사를 맡고 있는 송대균씨는 서울로 상경투쟁을 올라오면서 조합원 모두가 유서를 쓴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다. 유서를 4장씩 써서 하나는 청와대에 하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또 하나는 하이닉스측에 보내려고 했으나 거부당하여 열린우리당에 보내고 하나는 가족에게 보내는 유서로 모두들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말씀해 주셨다. 이들을 매서운 겨울날 유서를 쓰고 그 유서를 가슴에 품고 투쟁을 하게끔 한 자들은 누구인가?

나는 이야기를 들으며 숙연해질 수 밖에 없었다.

송대균씨는 1년 2개월간 투쟁중이지만 하루하루의 일과는 전혀 힘들지 않다고 말하셨다. 가장 힘든 것은 조합원들의 80~90%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해 아내와 아이들이 고생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집세 뿐 만 아니라 전기가 끊긴 집도 허다하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 살림사리를 회사정문에 쌓아놓은 조합원도 있는 등 가족들의 고생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하셨다. 갑자기 생계를 떠맡게 된 아내들은 이것저것 닦치는 대로 일을 하고 조합원들은 밤에 대리운전을 하거나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고 하셨다.

이날 대표단이 우의제 하이닉스 사장과 첫 대화를 하였다. 대표단은 이원종 도지사, 도 경제통상국장, 범도민대책위원회 대표 3인 등, 총 5명이었다. 대표단은 우의제 하이닉스 사장과 하이닉스-매그나칩 하청지회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단을 구성키로 합의 하였다. 이 자리에서 우의제 사장은 중재단을 통한 간접대화도 사태 해결에 나설 뜻이 있음을 내비쳤으며 다음달 8일까지 노사 양측이 신뢰할 수 있는 중재단을 구성하는데 동의하였다.

그 후 농성장을 찾은 범대위는 양측에 제안한 조건들이 차질 없이 지켜지기 위해 성실교섭의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며, 인내와 자제력을 발휘해 줄 것, 하이닉스측은 기업의 사회·도의적 책임, 충북에서의 위상과 충북도민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자세로, 하청지회 노조측은 명분에 집착하기 보다는 조합원과 가족들의 생존권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는 자세로 양측이 타결 가능한 협상안을 마련,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 아직까지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는 매그나칩은 기업의 사회·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히 대화의 장에

합류해 줄 것, 이원종 도지사과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청와대와 정부 등 그동안 하이닉스-매그나칩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각 주체들은 지속적인 관심으로 적극 앞장서서 주어진 책무를 다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박순호 수석부지회장을 만나 단결된 힘만이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열심히 투쟁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지지방문을 마치게 되었다.

현재 조합원들은 이날 중재단의 방문 후 27일 청주로 내려가 설 연휴를 가족들과 함께 보냈는데 노사대화 방식이나 대화의 시기 등 뚜렷하게 결정된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숙농성을 풀은 것은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한다.

나는 2005년 통일선봉대를 다녀오면서 청주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투쟁현장에서 연대투쟁을 한 적이 있다. 불법파견이라는 것을 판정받고도 대화에 임하지 않는 사측에 대항하여 30°C가 넘는 폭염 속에서 천막을 치고 투쟁을 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아직도 생각한다.

그러나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 다시 서울 농성장을 찾게 된 나는 처절한 생존권투쟁을 전개해 나가고 계신 분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이들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언제까지 가족들의 생계가 보장되지 않은 채 투쟁을 계속해야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나의 관심과 작지만 그들을 향한 지지가 그들의 승리의 날을 조금씩 앞당길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사회적인 관심과 지지만이 그들을 가족의 품으로 하루빨리 돌려보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

# 새해 인사

신현부 | 회원



입춘(2/4)이 하루 지난 5일 후원회 회원들이 낙성대 만남의 집으로 하나 둘씩 모여 들었다. 11시부터 모여 점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11시에 오기로 하고 나머지는 12시까지 오기로 했다. 선생님은 두 분이 계셨는데 김영식 선생님과 문상봉 선생님이셨고, 안학섭 선생님은 뒤늦게 도착하셨다. 민가협 어머님들이 상당수 미리 와 계셨고 나중에도 많이 오셨다.

겨울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추위만큼이나 낙성대 만남의 집의 마루는 정말 시베리아의 추위를 연상시킬 정도로 무척이나 춥다. 보일러가 전혀 들어오지 않아 발이 얼음위에 있는 것처럼 차갑다. 추위를 물리치기 위해 마루바닥위에다 담요를 골고루 깔고 나서 하나밖에 작동이 되지 않은 난방 기구인 온풍기를 돌려야 했다. 다행히 방에는 보일러가 작동이 되 온기가 있고 바다는 따뜻했다.

부엌에서는 떡국을 끓이기 위해 국물 다시를 내려고

무며, 멸치며, 양파 등을 넣고 끓이고 있다. 사람이 한 두 명이 와서 먹는 식사가 아니라 30명 정도의 대식구가 먹는 양이라 떡국 떡을 서산에 계시는 박근직 회원이 대략 10Kg이 되는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박근직 회원의 쌀은 서산에서 농사지어 될 수 있으면 농약을 적게 주었고

무엇보다 건조를 깨끗한 공기와 햇볕에 직접 말린다는 점에서 일반 시중 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쌀 자체의 빛깔이 깨끗하고 곱다는 점이다. 그러니 그 쌀로 떡을 만들었으니 맛 또한 얼마나 좋겠는가? (쌀이 필요한 사람은 꼭 연락하시길) 시간이 12시 정도에 이르

자 선생님한테 세배를 하였다. 건강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상에는 떡국과 김호현 회원이 가져온 북분자술과 증류시켜 가져온 술인데 딱히 이름이 없고 생수 물병에 담겨있어 냄새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물인지 술인지 구별이 안가는 관계로 김은 차장이 이름을 멋지게 붙였다. 그 이름하여 “겉나 좋은 술”, 겉나게도 아니고 겉나로 표현한 재치가 돋보였다.

떡국과 “겉나 좋은 술”을 맛있게 먹고 강정구 교수님의 강연을 들었다. 교수님의 강연 요지를, 따듯한 방에 앉아 있으니 꾸벅꾸벅 졸음이 와 놓친 부분과 잘못 들은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듣고 이해하기로는 다음과 같이 내 머릿속에 정리 되었다.

냉전성역, 즉 냉전으로 성역화 되어 기득권 권력집단의 이론적 토대가 되어 어느 누구도 함부로 이야기 할 경우에는 가차 없이 잡아 가두고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

것과 위선으로 국민을 속이고 억압하는 것에 대항하여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진실과 사실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요지였다. 구체적인 예로, 논문은 학자 집단에서 몇 백명 정도만이 볼 뿐이고 책으로 발간 될 경우 5,6백 명 정도 볼뿐이고, 신문에서는 원고매수의 제약으로 충분히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없어 인터넷에 연재하여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보고 생각 해 보길 원하셨다고 한다.

문제가 되었던 글도 13번째 글이었다. 양민 학살도 북한에서만 저질렀던 일이 아니었고 남한에서도 저질렀던 일이었고, 남과 간첩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북과 간첩도 오히려 숫적으로 많았고(남한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13,000명이라고 한다), 한국 전쟁을 통일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학문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학문적으로 침략전쟁이라고 표현할 때, 즉 북의 남침이라고 할 때, 침략한다는 표현은 한 국가가 한 국가를 무력으로 점거할 때 쓰는 표현인데,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보안법에서는 북한을 한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 집단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이승만이 전쟁하면 통일전쟁이 되고 김일성이 하면 통일전쟁이 안되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런 의문점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었다는 설명으로 이해했다. 개념에 대한 학자들 간의 진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동의가 있어야지 서로간의 불이해를 피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하나의 주제는,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주한미군 불가피론에 관한 입장이었다.

대체로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 1.북한의 전쟁 위험론
- 2.남한군 열세론
- 3.동북아세력 균형론
- 4.경제적으로 미국 덕을보고 있다.

위의 사항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을 해가며 강의를 해주었다.

위의 사항이 그런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우리 민족에게 어떤 점이 유리한가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폭력이라고 말씀하셨다.

부엌에서는 음식을 만들었던 여성분들이 설거지를 다시 하는 문화적으로 굳건한 전통(?)을 수행하고 있었다. 기득권이란 누리는 사람입장에서는 정말로 놓치기 싫은 부분인 것 같다. 상을 깨고 차가운 마루 바닥에 깔았던 담요를 개었다. 그동안 따뜻했던 온기는 사라지고 시베리아 찬 바람과 같은 정말 겁나 추운 마루 바닥만이 덩그러니 속살을 드러내었다.

차가운 마루 바닥이었지만 사람의 온기가 하나하나 모여 추위를 녹인다는 평범한 진리를 일깨워주는 날이었다.☺

편집자주

최종교정을 보던 중 동국대 이사회에서 강정구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는 급한 소식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지켜야 할 학교 당국에서 사법 당국의 최종 판결도 있기전에 학자를 강단에서 내모는 일을 저지른 대해 분노를 느낍니다.

## 통일운동의 포도주로 축배를!

서미라 | 회원



이른 봄날처럼 햇볕이 좋은날

1월 둘째 주 일요일 북한산에 올랐다. 그 주 화요일에는 금강산의 구룡연과 상팔담을 수요일에는 만물상 산행을 했으니 나로서는 한주동안 세 번이나 산행을 한 기록을 세웠다.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금강산 체험 연수’를 다녀와서 금강산의 아름다움과 분단의 역사 현장을 잠시 잊본 감회가 꿈결처럼 교차하며 가슴을 누르고 있는 참이었다. 겨울 금강산의 별칭 ‘개골산(皆骨山)’ 그 의미대로 철따라 갈아입던 고운 옷은 다 벗어버리고 산의 정수를 그대로 노출시켜 더욱 빛나는 산이었다.

두 차례의 금강산 산행으로 지쳤음에도 “술은 술로 풀고 등산의 피로는 등산으로 풀어야 한다.”는 남편의 감언도 있었지만 고은 선생님의 특강이 있다가에 선풍 따라나섰다.

몇 년 전 커다란 오동나무가 서있는 안성의 자택을 세 차례쯤 방문한 적이 있다. 그 무렵에 지금은 북으로 가신 비전향장기수 선생님들의 책 <0.75평지상에서 가장 작은 내 방 하나>에 머리글도 써주셨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여러가지 진심어린 조언과 도움도 주셨다. 늘 민중과 함께 해온 오동나무처럼 친근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오랜만에 볼 수 있는 자리고 강연도 놓치기 아까웠다.

북한산산행에는 초등학교생인 민지를 포함해 총 12명이 참가했다. 봉우리 이름도 모르고 무작정 올라갔는데 ‘형제봉’이라니 남과 북 우리 형제들이 반갑게 열씨안을 통일의 그날을 기원해준다. 형제봉 아래서 각자 준비해간 도시락을 풀어놓고 맛있게 점심을 먹었다. 이생애 아직 술의 맛을 배우지 못한 터라 그림의 떡이었지만 반주로 등장한 삼지구엽초로 담근 술이 인기가 있었다.

산행을 마치고 미아동에 있는 한빛교회로 갔다. 권오현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1980년대 초 한빛교회에서 고난받는 이(양심수)들을 위한 갈릴리교회가 문을 열었다고 한다. 한 시대를 이끈 민주화와 통일운동의 산실임은 말할 것도 없다.

교회에 들어서자 기타 반주에 맞춰 잔잔한 노래 소리가 들린다. 자그마하고 낡은 교회지만 물량으로 번들거리는 다른 교회와 달리 정감이 느껴지는 곳이었다.

이날은 ‘늦봄 문익환 목사님의 12주기 추모 통일강연회’ 초청 연사로 고은 선생님이 초빙되었다. ‘문익환과 평화통일’이라는 제목으로 대략 네 가지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셨다.

첫 번째는 문목사님의 가족 배경, 아들(또는 남편)이 감옥에 가는 것도 개의치 않고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등 떠밀어(?) 보내시는 부모님과 부인 박용길 장로님에 대

한 이야기-“난들 감옥에 가고 싶겠어? 나 감옥에 가기 싫다.”는 문목사님의 푸념에 모친 김신목여사께서 “무슨 소리야? 늘 감옥에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하셨다고 한다. 부인 박용길 장로님은 “사나이가 평양에 한 번 간다고 했으면 가야지!” 하시며 기어코 보내셨다고 한다. 참으로 예사로운 집안이 아니다.

두 번째는 늘 “운동주의 혼이 불려서 왔고 장준하의 정신이 불려서 왔다.”며 자신의 공로를 모두 운동주님과 장준하님에게 돌리는 진한 우정에 대한 이야기 - 문목사님은 만주 북간도 명동에서 출생하여 운동주님과 친솔한 우정을 나누었다고 한다. 또한 민주화와 통일운동의 길에 나서도록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고 장준하님에 대한 평생을 통한 우정과 존경의 념을 간직하고 계셨다 한다.

세 번째는 ‘잠꼬대 아닌 잠꼬대’라는 시를 발표하고 방북 길에 나선 ‘포옹의 통일운동’에 대한 이야기 - 마침내 그 해 방북을 결행하셨다. 분단의 벽을 넘어 김일성 주석을 만나자 악수가 아니라 와락 끌어안고 통일의 일보를 내디디신 것이다. 70년대 중반 신구약 공동번역 사업을 통해 ‘포옹신학’을 열었던 것처럼 재고 따지지 않고 누구든 와락 포옹해 버리는 그 순수함을 ‘포옹의 정치학’이라 표현하셨다.

네 번째는 문익환 목사님의 시와 만해 한용운 스님의 문학과의 비유였다. - 문익환 목사님의 글들이 만해 한용운 스님의 민족문학과 상통하는 점이 있다는 것이다.

“문목사님은 통일운동의 순교자이며 포도주요 축배다. 우리는 그 술을 하나하나 마셔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셨다. 예전에 안기부에서 고문 받을 때 “저놈은 문익환의 분신이야!” 할 때 “나는 ‘고은내 주체성’이 있는데 왜 누구의 분신이라고 하느냐?”고 따지셨다는데 “이제 문목사님은 가시고 어느새 ‘문익환의 분신’으로 살고 있음을 느낀다.”는 것이다.

“문목사님이 성령이 내린 듯(신명이 들린 듯)이 통일의 길로 가겠다.”고 하셨는데 마치 고은 선생님 강연하시는 모습이 늘 그렇듯 신명이 들린 듯 하다. 100여명의 청중 모두 그 신명에 흠뻑 취하여 들었다.

1989년 1월 1일 첫 새벽에 방북의 의지를 나타내는 시 ‘잠꼬대’를 쓰시고 이른 아침 고은선생님께 전화로 들려주셨다는 그 통화 장면에서는 순수한 영혼들의 고뇌에 찬 울부짖음을 듣는 것 같아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눈물 한줄기가 볼을 타고 흐른다.

신명을 올리듯 토해내시는 강연의 대강을 어설피게 글로 옮기니 텅텅하고 도대체 맛이 없다. 비디오카메라를 들고 가지 않아 아쉬웠다. 그래도 생생하고 귀한 강연을 들었으니 큰 행운이다. 강연이 끝나고 다과를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그 자리에서는 문목사님의 3남이며 부친의 외모를 가장 많이 닮았다는 배우 문성근씨가 주인공인 듯했다. ‘스타’가 나타나니 빛을 발하고 역시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80년대 연극무대에서 만나 본 이후 영화 이외에 직접 만나긴 처음이었다. 우리도 팬으로서 한 장 찰칵!

금강산과 북한산 그리고 통일강연에 이르기까지 지난 한 주는 조국통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지낸 셈이다.

문익환 목사님은 ‘통일은 다 됐다!’라고 하셨다. 역사의 흐름은 통일의 길로 접어들었다. 마지막 물줄기가 소용돌이 치고 있는 이 때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 **☞**

**어떤 이름**

-고은-

이제 우리는 다른 이름이 있어야겠다  
 새로 가슴에 품고  
 천리길 가며  
 지켜야 할 이름이 있어야겠다  
 이제까지의 이름 아니고  
 날 저물어 어둠이면  
 하나둘 빛나는 불빛 아래  
 처음으로 불러볼 이름이 있어야겠다

**오 사람이 꼭 사람 이상이라면**



# 그에 대한 몇가지 새삼스러운 오해

편집부



권오현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 상임공동대표, 국가보안법철폐 범국민행동연대 상임공동대표,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 통일연대 공동대표, 올바른 과거 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상임공동대표,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공동대표,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6.15공동선언을 위한 남북해외 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 고문, 민가협 공동대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장. 현재 맡고 있는 직책을 나열하기에도 숨이 찬다.

이와 같이 평생을 민족민주통일 운동에 몸바치고 사

회 전반에서 청년들을 넘어서는 열성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는 선생에 대해 회원들조차도 의외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

양심수후원회의 핵. 권오현 선생님에 대한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알 똥 모를 똥 헛갈리는 몇가지 오해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 달의 이런 회원, 권오현 선생님을 만나보자.

가끔 감옥으로부터 오는 감사의 편지글들 중 선생님께서 뜻하지 않게 실례를 하는 경우로

## 1. 선생님을 민가협 어머니 중 한분으로 착각하는 경우

‘권오현 어머니께’라고 보내온 편지를 보며 선생님과 한참을 웃었다.

‘민가협’ 하면 ‘어머님들’이 생각나는 것이 자연스럽긴 하다. 선생님이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공동대표이기도 하고, 사진을 보시면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듯.

## 2. 후원회를 이끄는 청년

이 부분은 순전히 선생님의 탓. 선생님의 왕성한 활동과 외모로 인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선생님의 나이. 심지어는 가까이 지내는 이들조차 선생님이 아직 5, 60대 인줄 알기도 하거니와 가끔은 ‘후원회’라는 단체의 성격과 혼동해 청장년으로 오해받기도 한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선생님의 40대때 사진과 최근의 사진을 같이 놓고 보면 구별이 어려움(자세도 똑같다^^)

37년 3월생으로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 19세때 농촌청소년운동을 시작으로 64년부터는 군사정권 한일회담 반대운동 등 본격적으로 민주화운동의 청년 활동가

로 성장한다. 79년 남민전사건으로 체포되어 3년 4개월을 복역하고 이후 남민전 관련자 석방 후원운동으로 양심수후원운동을 시작, 85년 민가협 창립과 89년 양심수후원회 창립에 이른다. 91년 54세 때 민가협 공동의장, 양심수후원회장을 맡으면서 이제는 권오현 하면 양심수후원회를 떠올리게 된다. 어쩌면 권오현 선생님은 처음 민가협 공동회장,

양심수후원회장을 맡던 그 때 이후로 사람들의 뇌리에서 나이를 먹지 않는 청년으로 기억되고 있음일 지도 모르겠다. 선생님은 올해 70세. 3월 4일에 출판기념회와 함께 고회연을 가질 예정이다.

### 3. 가족관계, 그의 사생활.

연간 선생님의 이동거리가 지구를 몇바퀴 돌만한 거리인지는 헤아려보지 않아 모르겠지만 선생님의 일정표대로 살면 가정이 순탄하기 어려울터. 불행인지 다행

인지 선생님은 현재 수유리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 순수 총각이시다. 물론 결혼을 하신 적도 없다. 살짝 털어놓으시는 연애담을 들어보아도 기실 연애라기보다는 연애를 할 뻔 한 사연이다. 19세부터 운동을 시작하셨으니 자주민주통일운동과 연애하고 결혼했다 하신다면.. 슬프지만(?) 사실이다. 단, 선생님의 법적 가족관계에서 ‘처’와 ‘자’가 없음은 사실이나 ‘처’는 몰라도 ‘자’를 자처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다. 궁금하시면 3월 4일 선생님의 고회연에 와보시라.

이외에도 살~짝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후원회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된다. 단, 선생님의 사생활 보호차원 한도내에서.☺

#### 약 력

- |        |                                   |  |                                       |
|--------|-----------------------------------|--|---------------------------------------|
| 1951.  | ●홍북초등학교 졸업                        | 2001.                                  | ●6.15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 연대공동대표     |
| 1956.  | ●농촌 청소년운동(4H) 흥성군연합회 결성           | 2002.                                  |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 위원회 상임공동대표  |
| 1961.  | ●농촌사회운동(농사개량, 신용조합, 야학 등)         |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상임고문          |                                       |
| 1964.  | ●사상계. 군사정권 한일회담반대운동               | 2003.                                  |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
| 1968~. | ●통일사회당 입당.                        |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공동대표                  |                                       |
|        | ●통일사회당 문화국장. ●서울시 제1지구당위원장.       | ●송두울 교수 석방과 사상 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                                       |
|        | ●당원교육책임                           | 2004.                                  |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상임공동 대표          |
| 1972.  |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 한국지부 결성참여          | ●과거사법 개정 추진위원회 위원장                     |                                       |
| 1974.  | ●유신반대, 민주회복국민회의 결성조직사업            | 2005.                                  | ●6.15공동선언을 위한 남북공동해외공동행사 남측 준비위원회 고문  |
| 1979~. |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 사건으로 체포, 3년 4개월 복역 |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 대책위원회 공동 대표           |                                       |
| 1983~. | ●남민전 관련자 석방운동과 후원활동 (장기수가족운동협의회)  |  |                                       |
| 1991.  | ●양심수후원회 회장, 민가협 공동의장(현재까지)        |  |                                       |
| 1999.  |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              |  |                                       |
|        |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 상임공동대표             |  |                                       |
| 2000.  | ●제11회 사월혁명상 수상                    |  |                                       |
|        | ●조선노동당 창건 55돌 경축기념행사 초청 평양방문      |  |                                       |



## 권오현 선생 출판기념회 및 고희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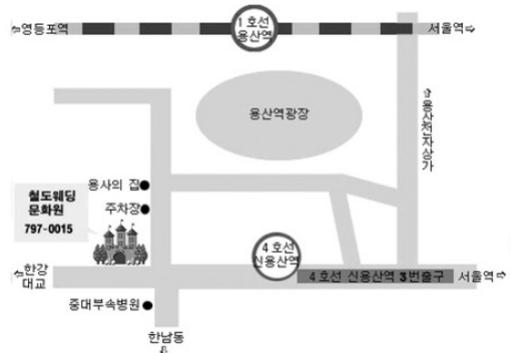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을 알리는 입춘이 지남에도 이를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매섭습니다.

자주만 주동일의 외길만을 걸어왔으며 특히 부당하게 갇혀있는 양심수 석방과 후원에 헌신해 왔던 양심수 후원회 권오현 회장이 올해 일흔을 맞게 되었습니다.

양심수 후원회와 권오현 회장과 함께 반제반파쇼 민주화운동으로 고초를 겪었던 남민전 동지들이 회장의 고회를 맞아 그동안 회장이 써 놓았던 글은책으로 엮어 출판기념식과 함께 고희연을 열기로 하였습니다.

선생은 투쟁의 현장에 앞장서서 모범을 보였을 뿐 아니라, 꼼꼼한 자료조사와 정성을 다한 글로 그때그때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짚어주셨습니다. 혼자 몸으로 자신을 돌봄 없이 평생을 살아오신 선생의 고회를 맞아 투쟁의 동지, 후배이자 자식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모십니다. 부디 바쁘시더라도 함께 하시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장소 : 2006년 3월 4일 (일) 오후 5시 철도웨딩홀

### 3월 장기수선생님과 함께하는 이북 영화 상영회

■ 일 시 : 3월 14일 (화) 오후 6시

■ 장 소 : 통일부 북한 자료센터(광화문 우체국 6층)

■ 작 품 명 : 민족과 운명 제50~51부 (어제, 오늘 그리고 래일편 제3~4부, 조선예술영화촬영소, 2001년제작, 135분상영)

■ 줄 거 리 : 애국과 반역은 곧 혁명적 신념을 지키는가에 좌우된다는 점을 강조한 영화이다.

- 분회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핍박으로 집을 나오게 된다. 평양에 올라온 차금석은 처음으로 안사돈을 만나게 되나 그가 아버지에 의하여 학살된 전 면당위원장의 동생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곧 떠나버린다. 집에 돌아온 경심은 아버지를 찾고, 경심의 시어머니는 과거사 때문에 괴로워한다. - 경심이 논문사건을 조사하나 상급에서는 압력을 넣어 막으려고 한다. 분회는 시댁식구들이 점점 개인주의화, 이기주의화 되는 생활을 하는 것에 정면으로 맞설 결심을 한다. 차금석은 6.25전쟁 중 물욕에 빠져서 조국을 배신한 일로 괴로워한다.

※ 문의: 한천옥 (016-235-5631) 관련료는 무료입니다.

### 2월 산행

■ 가 는 곳 : 관악산

■ 일 시 : 2월 26일 (일) 오전 10시

■ 모이는장소 : 낙성대역 1번출구

■ 준 비 물 : 간단한 도시락과회비 3000원

# 후원회원 가입 및 후원금 자동이체(CMS)신청해주세요!

그동안 바쁘고 번거로워서 회비를 못내셨던 분들도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만 알려주시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회비를 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양심수후원회로 보내주십시오.

## 보내실 곳

- FAX : 02-888-4470    ■ E-mail : yangsimso@hanmail.net
-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매월 챙겨가며 은행에 회비를 납부해야하거나 자동이체를 위해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후원회 사무실로 전화주세요.(874-4063)

성 명		예금주	
연락처		거래은행	
예금주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 소			
후원금액	5천원(    ), 1만원(    ), 3만원(    ), 5만원(    ), 10만원(    ), 30만원(    ), 기타(    )		

2005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 개인신상정보의 비밀은 철저히 지킵니다.
- 출금일은 매월 5일이며 잔액부족 등으로 미이체시 15일 또는 23일에 이체됩니다.
- 인감 또는 서명은 해당 예금계좌(통장) 사용 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한국일보 배계규



▶뉴튼심재봉

#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 2006년 1월 6일 민가협 조사 집계

이름	분류	소속	사건명	구속날짜	적용법규	형량	만기일	수감지	기타결
최석영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05-04-08	업방, 폭력	1년6월+1년	2007/11	대구교 86	기결
이문희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크레인시위"	05-05-17	업방, 폭력	1년6월	2006/10	진주교 6	기결
박해욱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05-07-05	업방, 폭력	1년6월+1년	2007/07	부산교 6060	기결
강상규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05-12-29	업방, 폭력	10월	상고중	부산교 874	미결
윤종선	노동자	금속노조	하이텍일시 산재인정 투쟁	05-08-17	특공, 집시	8월	상고중	영등포구 3483	미결
윤태수	노동자	금융노조(조흥은행)	구조조정반대	05-09-08	폭력			서울교 18	미결
김우용	노동자	기아자동차노조	경제특구반대시위	04-02-22	업방, 집시	2년6월	2005/12	청주교 65	기결
김수억	노동자	기아차비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파업	05-10-04	특공, 치상			수원교 309	미결
이상연	노동자	기아차비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파업	05-11-23	특공, 치상			수원교 302	미결
강동열	노동자	딤프연대(서남)	10.13 파업	05-10-18	업방			영등포구 34.11	미결
송종찬	노동자	민주노총(대구)	맥아더동상철거 집회	05-11-11	특공			인천교 5005	미결
김재경	노동자	민주노총(대구)	맥아더동상철거 집회	05-11-17	특공			인천교 5016	미결
채장식	노동자	민주노총(대구)	맥아더동상철거 관련	05-12-05	특공			인천교 5006	미결
박상욱	노동자	민주노총(전남동부)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 관련	05-11-08	업방, 집시			순천교 102	미결
장종익	노동자	민주노총(전남동부)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 관련	05-10-27	업방, 집시			순천교 264	미결
김용직	노동자	민주노총(충북)	하이닉스 노조 집회 등	05-06-13	집시, 특공	1년6월	상고중	대전교 1313	미결
김성환	노동자	삼성일반노조	노조활동 관련	05-02-22	명예훼손, 정통법	추기기소	상고중	부산교 1102	미결
구재보	노동자	세원테크노조	이현중결사 관련	03-12-22	폭력, 업방	1년6월+2년6월	2006/04	대전교 1959	기결
박용규	노동자	㈜동진이공 노조	노조활동 관련	05-06-29	공방	8월	2006/02	경주교 376	기결
엄기준	노동자	㈜유성기업 노조	노동자대회(11.9)	03-12-10	집시, 폭력	1년6월+2년6월	2007/12	대전교 2999	기결
이희석	노동자	통일중공업 노조	노조활동 관련	05-09-27	업방, 집시	6월	항소중	마산교 1530	미결
신재교	노동자	하니닉스 하청노조	노조활동 관련	05-10-21	집시, 폭력			청주교 726	미결
채봉석	노동자	한국게이츠 노조	맥아더동상철거 집회	05-11-17	특공			인천교 5009	미결
김태윤	노동자	현대차비정규직 노조	불법파견 철폐 투쟁	05-12-21	업방, 집시			울산교 27	미결
하정기	노동자	현대차비정규직 노조	불법파견 철폐 투쟁	05-12-05	업방, 집시			울산교 9	미결
김대윤	노동자	현대차비정규직노조	불법파견 철폐 투쟁	05-12-21	업방, 집시			울산교 27	미결
김종안	노동자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노조	투쟁 결의대회 관련	05-10-20	업방, 집시			순천교 142	미결
박정훈	노동자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노조	대량해고반대 농성	05-11-05	특공, 치상			순천교 278	미결
박태규	노동자	화심연맹	노동자대회(11.9)	03-11-12	집시, 폭력	1년6월+1년6월	2006/11	부산교 1406	기결
이태문	농민	전농(남해)	11.15 농민대회	05-11-15	특공, 폭력, 치상			영등포구 3493	미결
김종교	농민	전농(순창)	11.15 농민대회	05-11-15	특공, 폭력, 치상			영등포구 3429	미결
나현주	농민	전농(의령)	11.15 농민대회	05-11-15	특공, 폭력, 치상			영등포구 3416	미결
정상수	농민	전농(충남)	쌀개방안 저지 시위	05-10-25	집시, 방화			영등포구 3491	미결
신재표	농민	전농(해남)	11.15 농민대회	05-11-15	특공, 화염병			영등포구 3402	미결

박안영	농민	전농해남)	11.15 농민대회	05-11-15	특공, 화염병			영등포구 3495	미결
전옥용	일반	개인	북한방문	04-11-18	국보	3년6월	2007/05	서울구 29	기결
이승규	재야	다산인권센터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5-07-28	병역법	1년6월	2007/01	김천교 569	기결
이원표	재야	사회당(대전)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4-11-02	병역법	1년6월	2006/05	대전교 800	기결
문상현	재야	사회당(서울)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5-07-19	병역법	1년6월	2006/12	청주교 844	기결
윤치고	재야	사회보호법출소자모임	청송감호소 처우항의	04-06-20	특기법	1년+6월	2006/02	춘천교 451	기결
염창근	재야	이라크평화네트워크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4-12-01	병역법	1년6월	2006/06	충주교 654	기결
최진	재야	작은누리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5-06-28	병역법	1년6월	2006/12	청송제2교 1329	기결
강태운	재야	전민주노동당 고문	회합통신 사건	03-08-15	국보	6년	2007/08	대구교 90	기결
임재성	재야	전쟁없는세상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5-01-28	병역법	1년6월	2006/07	충주교 865	기결
김영재	재야	전철연	강제철폐반대(상도동)	04-01-19	공방, 폭력	2년	2006/01	서울구 76	기결
조영귀	재야	전철연(수원망포)	강제철폐반대	05-02-17	집시, 폭력	1년6월	상고중	서울구 2658	미결
남현희	재야	전철연(십정동)	청와대앞 1인시위	05-07-04	집시, 폭력			서울구 27	미결
이재남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폐반대	05-06-08	폭력, 화염병, 치사			수원구 303	미결
서창석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폐반대	05-06-08	폭력, 화염병, 치사			수원구 350	미결
정창윤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폐반대	05-06-08	폭력, 화염병, 치사			수원구 358	미결
지광호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폐반대	05-06-08	폭력, 화염병, 치사			수원구 317	미결
이영자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폐반대	05-06-08	폭력, 화염병, 치사			수원구 157	미결
홍경희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폐반대	05-05-20	특공, 공방			수원구 414	미결
김정덕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폐반대	05-06-08	폭력, 화염병			수원구 340	미결
강재희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폐반대	05-06-08	폭력, 화염병, 치사			수원구 321	미결
유경렬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폐반대	05-06-08	폭력, 화염병			수원구 348	미결
성낙경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폐반대	05-05-03	화염병, 치사			수원구 339	미결
방영철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폐반대	05-06-08	폭력, 화염병			수원구 346	미결
김영학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폐반대	05-06-08	폭력, 화염병			수원구 315	미결
유호근	재야	희망동네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5-02-17	병역법	1년6월	2006/08	의정부교 1550	기결
김영식	학생	중앙대	11.15 농민대회	05-11-15	특공, 치사			영등포구 3441	미결
조정민	학생	한국예술종합학교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5-05-17	병역법		항소중	서울구 2322	미결

01-----

새해 첫날 저녁,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문상봉, 김영식 선생님께 세배. 권오현, 김호 고광희, 김은, 김인해 함께 떡국을 먹으며 새해 덕담을 나누다. 선생님들께 전화로 새해인사. 박용길 장로님, 유기진 선생님께서 세배드림(권오현)

남북해의 청년들 200여명 금강산 해금강에서 새해 일출시간에 '우리 민족 청년 새해맞이 통일행사'를 갖고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다. 남측의 한청 박희진 부의장, 북측 평양시 학생위원회 한명국 부위원장, 재일 한국청년동맹 효고현 본부 리준일 부위원장이 함께 읽은 공동결의문에서는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을 확산시켜 민족대단결을 대중화하기로 하다.

서울중앙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신경기 부장판사)는 기부사가 2004년 국정감사당사자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간첩'으로 명기해 명예회손 당했다며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던 이석기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2005. 12. 23)에서도 원고승소 판결 내린 것으로 이날 언론들이 보도하다.

02-----

정부는 통일부장관 후임으로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사무차장을 내정했다고 언론들이 보도.

03-----

민기협 사무실에서 운영위원회 열다. 활동보고와 재정보고(인권론서)트 재정보고 포함)에 이어 600회 목요집회 내용 등 논의.

우이동에 사시는 송환된 윤희보 선생님 사모님, 박선에 선생님과 동생 박순애 선생님 찾아뵙고 설 인사드림(권오현)

평택시 팽성읍 대추초등학교에서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트럭터 평화순례단이 10박 11일 1,200km를 달리는 힘찬 출발을 하다. 순례단은 김지태 팽성대책위원장 등 7명이 군산, 부안, 광주, 광양, 부산, 울산, 대구, 대전 지역 등 대장정하고 14일 서울에 들어올 예정.

04-----

홍콩에서 열린 WTO 6차 각료회의에 대한 반대 투쟁을 진행하다 구속된 한국민중투쟁단이 5일 홍콩 침사취이 거리에서 'WTO 반대와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간다. 홍콩에서 기소당해 억류 중인 노동자, 농민, 학생 활동가 들은 한국민중투쟁단 11명을 포함해 총 14명이며 이번 단식에는 한국인 11명 이외에 일본인 활동가 1

명 등 총 12명이 참여한다. 이 12명의 활동가들은 작년 12월 23일 보석으로 출소한 뒤 홍콩의 삼세이포 지역에 있는 섬오이 교회 옥탑강당에서 함께 지내고 있다.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를 통해 이북의 공장기업소나 대학에 '명예인사', '명예학생'으로 등록된 남측 '민족민주열사'. 학생 31명의 명단이 공개되다. 군부독재시대 민주화 운동과 통일 운동 노동운동을 하다 산화해간 학생열사들과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죽임을 당한 신효순, 심미선 여중생, 1969년 통일혁명상 사건으로 사법살인 당한 김종태 서울시당 위원장, 1989년 평양에서 열린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대협 대표로 참가했던 임수경 씨 등 명단을 북측 민회협에서 넘겨받은 자료에서 들어나다. 31명 열사명단-김중태, 박종철, 김태훈, 박해정, 리재호, 한영현, 김세진, 최운순, 황정하, 박관현, 진성일, 리동수, 김두환, 김성수, 리한렬, 조성만, 최덕수, 박래전, 남태현, 리철규, 림수경, 강경대, 박승희, 김영균, 천세용, 남태혁, 안성모, 김귀정, 리래창, 신효순, 심미선

05-----

민기협 600회 목요집회. 조순덕 의장의 여는말, 임기란 전 상임의장의 목요집회회장, 함주명 씨 어머니들에 꽃바구니 드림. 김성환 씨 부인 사례발표,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국장, 전쟁없는세상 일꾼의 600회 목요집회와 어머니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 권오현 공동의장의 목요집회의 의의와 앞으로의 투쟁결의발언이 있었음.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국보연대)는 지난 12월 31일 당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총련 13기 의장 송효원 학생에게 출두요구서를 발부한 것과 관련해 출두요구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다.

06-----

용산구 동자동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통일운동단체 원로 및 회원,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 등 각 부문 단체대표 등 70여명이 모여 '통일연대 신년하례식'을 열고 새해 덕담을 나누다. 한상렬 상임대표의 여는말, 민주노총 비대위 전재환 위원장, 전농 서정길 부의장,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한청 박희진, 한총련 14기 준비위원장 등 각 부문 새해 다짐과 이종린 범남본 명예의장의 격려말이 있었음. 이보다 앞서 통일연대 회의실에서는 1월 상임대표자회의를 갖고 2.22일 6기 총회 날짜 등 확정하다.

07-----

마석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 묘역에서 통일인사 및 후학들이 모인가

##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운데 '통일애국지사' 故 김남식 선생의 1주기 추모식이 있었음. 추모 목록에 이어 사회자의 악력소개, 미망인 고정숙 여사의 분향, 박중기 추모연대 대표,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대표, 노중선 사월혁명회 상임대표(통일뉴스 고문),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회장, 강정구 교수, 황건 사월혁명회 전 상임의장 등 추모사, 이계환 통일뉴스 대표의 경과보고 등이 있었음.

미대사관 앞에서 14기 한총련 건준위 주최로 버시바우 규탄 대회가 열리다.

통일부는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이북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남아있던 남측 근로자 57명이 이날 완전 철수했다고 밝힘. 케도 측의 경수로 건설 중단과 관련 북측은 지난해 12. 19일 '조선중앙통신상보'에서 '부시 행정부가 기본합의문을 파기하여 우리가 입은 정치 경제적 손실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며 '우리는 엄청난 손실에 대해 마지막 한 판까지 기어이 보상을 받아낼 권리가 있다'고 밝힌 바 있음.

정부당국에 따르면 2000. 9. 2일 송환된 비전향장기수들이 과거 군사정권 아래에서 겪었던 탄압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고소장이 6일 판문점을 통해 남측에 전달됐다고 밝힘.

08 -----

WTO각료회의의 저지 반대 시위를 벌이다 구속기소된 한국인 11명의 석방활동을 위해 권영길 민주노동당 임시대표,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 전재한 민주노동총비대위원장, 이종희 참세상 대표 등 한국민중투쟁단 대표단이 홍콩으로 출국함.

09 -----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트랙터 평화순례단이 대추리를 떠난 지 7일째 부산 하이라미 미군기지 앞에 도착. 부산시민사회단체의 뜨거운 환영을 받고 이날 오후 평택 대책위와 부산민중연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다. 김지태 평성대책위원장이 읽은 기자회견문에서 '생명을 건 투쟁이 아니면 강제 철거를 막을 수 없다'며 '이 땅은 우리의 목숨 - 끝까지 지키다'고 한다. 평화순례단과 부산시민들은 같은 자리에서 496일째 촛불행사를 갖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폐지등을 담은 국가인권기본계획(인권NAP)을 확정해 범국가적인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인권NAP은 3부로 나누어졌는데 1부

는 인권NAP의 개요, 2부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 인권보호 분야로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난민, 시설 생활인, 성적소수자, 새터민 등 11개 대상 영역 인권개선 과제를 담고 3부는 인권 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도개선 및 보안을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로 양심의 자유 보장을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일정보위 확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 복무제도 도입 등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음.

10 -----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앞에서 평통사 주최로 76차 반미연대 집회를 열고 버시바우 주한미대사가 6자회담 파탄의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촉구함.

해방이후 국가폭력 피해자 및 피해 유족들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앞에서 '국가폭력피해사건의 철저한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공동신청 기자회견'을 열다. 한총목 계승연대 집행위원장 사회로 오종렬 계승연대 상임공동대표의 취지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이었던 정철용 씨의 촉구발언,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동생 조용준 씨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마치고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피해자 공동신청을 하다. 이외는 별도로 공동신청대표단은 송기인 진실 화해-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과 김갑배 상임위원을 면담, 철저한 조사로 진실규명을 요구함.(정철용, 조용준, 오종렬, 권오현, 김영승, 신귀영, 조호종 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날 새벽 단동을 거쳐 중국 방문길에 들어선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론들이 보도함.

11 -----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후원회 소식 17기 호 발송작업(문상봉, 김영식, 양계숙, 권오현, 김은)

용산구 동자동 금성빌딩 전국연합 사무실 앞에서 '활빈단' 등 보수단체 회원 20여명이 고 김남식 선생 모비철거와 전국연합 해체를 주장하는 등 행패를 부림.

홍콩 WTO각료회의의 반대 시위와 관련 11명에 대한 한국민중투쟁단 공판에서 홍콩 검찰은 8명에 대해서는 공소취하로 석방하고 양규규 민주노동 공공연맹위원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보석금 예치를 조건으로 이날자로 거주이전 제한 요건을 철회, 일시 귀국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알려지다. 양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다음 공판은 3. 1일에 있을 예정.

1 2 -----

☞ 민기협 60회 목요일집회. 조순덕 상임의장의 여는말, 임기란 전 상임의장, 권오현 공동의장 등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 석방 등 새해 목표 발언, 백주선 어머니 감옥에서 온 편지 낭독 등이 있었음.

☞ 프란체스코 4층 교육회관에서 '한국전쟁 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2006년 신년회' 가 열리다. 이영일 운영위원 사회로 이이화 상임공동대표의 인사말,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 김원웅 국회 윤리특위위원장, 이영조, 김동춘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 등 격려사, 이훈열 사무처장경과보고, 축하공연과 2부 만찬 등이 있었음.

☞ 영등포 전교조 회의실에서 계승연대 40차 상임대표자회의 - 권오현 상임공동대표 진행으로 사업보고, 재정보고 등에 이어 계승연대 새해 사업계획안, 민주공원 사업계획안, 과거사 위에 계승연대 단체 추천안 등 심의 원안 채택하다.

☞ 민주노총 1층 대회의실에서 민중연대 신년하례식이 있었음.

1 3 -----

☞ 미대사관 옆 KT 건물 앞에서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주최로 각계 단체 회원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와 강제토지수용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국제공동행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다.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의 발언에 이어 주한미군 범죄근절운동본부 고유경 사무국장이 일본 아시아공동행동(AWO, 일본 자유법조단, 인도네시아 전국문화활동가네트워크를 비롯해 하와이, 이탈리아 등 세계 각지의 평화에 호단체에서 보내온 연대사를 소개하였고, 각계 연대발언으로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신건수 부의장,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최선희 사무처장의 발언이 이어짐. 평성대채취 조직본부장 이상렬 (도두2리 이장)의 '평성주민 트렉터 전국평화순례'의 경과과정을 보고, 평택범대위 김용한 공동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은 후 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함.

☞ 지난 12월 홍콩 反 WTO 시위에 참가했다가 구속.기소됐던 한국시위대 11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함. 8명은 지난 11일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취하로 석방됐으며 양경규 민주노총 공공연맹 위원장 등 3명은 보석금예치 조건으로 거주이전제한이 철회됨.

☞ 지난해 북과 합작으로 3ha 논을 일구어 '통일벼' 1톤을 들어온 바 있는 경기도가 평안시 강남군 지역 100ha(여의도 전체의 1/3)에 달하는 면적으로 합작벼 농사를 확대하는 합의를 체결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함.

1 4 -----

☞ 경기도 안성 70번국도 당왕사거리 용인방면 진입로에서 트렉터 순례단과 평성주민, 시민사회단체 회원이 모인 가운데 '평성주민 트렉터 평화순례 가로막는 경찰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다. 11일간의 전국순례를 마친 트렉터 순례단이 서울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이 막아나섰으며, 순례단은 경찰에 길을 터줄 것을 요구하며 도로위에서 농성을 벌이다.

☞ 마석 모란공원에서 박종철 열사 19주기 추모식이 열리다.

☞ 마석 모란공원에서 늦봄 문익환 목사 12주기 추모식이 열리다. (사)통일맞이 늦봄 문익환 목사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박용길 장로님 등 유족과 각계 사회단체성원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한빛교회 유원규 담임목사 사회로 진행. 추모목념, 추모기도에 이어 이재정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함세웅 신부,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 등 추모사에 이어 '그대 오르는 언덕'을 함께 추모노래로 불렀으며 가족인사와 추모헌화가 있었음.

☞ 평택시 평성을 대추초등학교에서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주최로 주민총회 500일 기념 문화제가 열리다. 이날 12일간의 전국순례를 마치고 들어온 트렉터순례단이 마을로 귀환하여 각 지역의 연대지를 전하며 주민들에게 힘을 불어넣다.

1 5 -----

☞ 양심수후원회 1월 산행. 모두 12명이 함께하여 평창동 북악 호텔을 떠나 북한산 형제봉 능선을 등반, 남쪽봉을 지나 국민대쪽으로 내려오다. 이어 미아동 한빛교회로 가다.

☞ 한빛교회 신도 및 통일맞이 관계자, 사회단체성원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맞이 문익환 목사 서거 12주기 추모행사'로 '문익환과 통일'이라는 주제의 고은 시인의 강연이 열리다. 양심수후원회에서는 김재선, 기호현, 서미라, 신현부, 신현익, 나순석, 나민지, 박철민, 이웅준, 송창학, 권오현 함께

☞ 북한전문기자 통일뉴스 상임고문으로 활동한 '통일' 김남식 선생의 묘역이 자유투, 구국의열사민행동, 활빈단, 인천 HD(북파공작특수임무동지회) 등 수구단체들에 의해 훼손되다.

☞ 경찰청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위진압에 나서는 전의경 기동대원의 진압복에 개인 명찰을 착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히다.

1 6 -----

☞ 무기한 상경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대하이닉스매그나칩 비정규노

##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동자들이 청와대에 유서를 전달하다. 총무로 한 음식점에서 과거청산-범국민대책위 주선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송기인 위원장과 상임 비상임위원 등 초청 신년 상견모임이 있었음. 박석운 집행위원장 사회로 참석자 소개와 송기인 위원장 등 소임에 대한 결의 발언, 허영춘, 권오현 등 범국민 대책위 상임공동대표의 철저한 진실규명 부탁말이 있었으며 최병모 전 민변회장,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의 축하말씀이 있었음.

### 17-----

**☞** KAL858기 진상규명 가족회와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연희동 전두환 자택 앞에서 KAL858기 진상규명을 위해 입을 열어야할명단을 발표하고 대한항공 858기 실종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책임있는 해명을 촉구하다. 책임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최병렬(당시 공보처장관), 안무혁(당시 안기부장), 이상연(당시 안기부 국내담당 차장), 정형근(당시 안기부수사담당), 박철연(당시 안기부장특별보좌관), 이상형(당시 김현희 담당검사), 김기춘(당시 검찰총장), 배석이회창, 이상원, 김주환(김현희 사형을 확정했던 대법관), 최광수(당시 외무부장관), 박수길(당시 외무부차관보), 조갑제(월간조선 기자) 외 김현희 등.

### 18-----

**☞** 지난해 말, 폐업에 맞서 고공 크레인 농성을 벌인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비정규직지회 박정훈 지회장에게 1년 6월의 실행, 장종의 동부지구협의회 사무차장, 김종안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에게는 각각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되다.

**☞**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선로동당 총비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월 10일부터 18일까지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다고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연합뉴스가 보도하다. 또한 중국의 CCTV도 종합뉴스에서 두 나라 지도자들의 회담장면 등과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공식 중국방문을 보도하다. 김 위원장의 중국방문에는 박봉주 내각총리,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박남기, 리광호 노동당 중앙위 부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등이 수행했으며 조중 정상 상봉과 회담에서 함께 했으며 중국 측에서는 정칭홍 부주석, 탕지쉬안 국무위원, 와자루이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배석했다고 보도하다. 김 위원장 일행도 중국의 중남부 우한, 주하이, 선전, 광저우 등 경제특구 등을 돌아볼 것으로 알려졌다.

### 19-----

**☞** 외통부 앞에서 평통사, 범민련 남측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모여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평통사 오혜란 미군문제국장, 허영구 AWC(미일제국주의 지배와 수탈에 반대하는 아시아민중동맹) 한국위원회 대표의 발언이 이어졌고, 성명서를 통해 전략대화나 SPI 등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노린 모든 회의의중단을 촉구하며 '사전협의제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 절대 불가', '반환기지 환경 복구비용 부담 불가', '평택미군기지 확장 원점에서 재검토',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 협정 폐기'를 한국 정부의 입장으로 확실히 천명할 것을 주장하다.

**☞** 연세대 학생회관 푸른샘에서 '13기 한총련 중앙상임위에 대한 출두요구서 발부 규탄 및 한총련 합법화, 국가보안법 폐지 기자회견'이 열리다. 민기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현 회장, 한총련 김지하 조국통일위원장의 한총련 정당성과 국가보안법폐지 발언, 한총련 송효원 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이날 오후 한총련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13기 한총련 중앙상임위에 대한 출두요구서 발부'를 규탄하는 경찰청 앞 기자회견을 열려했으나, 경찰의 방해로 30여분의 약식집회로 정리함.

**☞**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양심수후원회 17차년도 제9차 운영위원회 열리다. 활동보고와 재정보고에 이어 만남의집 운영관리문제 등 논의하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17차년도 운영위원회 신년하례행사를 겸해 이루어졌고 노중선 지도위원 함께 하심.

**☞** 민기협 602회 목요일 집회. 탑골공원 앞에서 열림. 조순덕 상임의장의 여는말, 임기란, 서경순 전 상임의장의 양심수 석방촉구발언, 하이닉스 사내하청 노상 농성노동자들의 사례발표, 한총련 학생의 이적규정 철회 촉구발언이 있었음.

**☞** 범민련 남측본부와 평통사는 광화문 외교통상부 앞에서 이날부터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장관급 전략대화에 대해 '한미 동맹의 침략동맹화 노린 장관급 전략대화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한미동맹, 동맹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라는 이 회의는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데 따라 신설된 한미장관대화체계로서 한미동맹의 미래비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문제 등 한미동맹의 재편문제를 핵심의제로 하고 있음.

### 20-----

**☞**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서울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평택미군기지 확장 예정지역의 문화재 보존을 촉구하다.

**☞** 서울 중구 명동 향린교회에서 한국교회인권센터추최로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기도회가 열린다. 이 날 기도회에서는 평택미군기지 확장계획을 막아내기 위한 기독교인들의 실천을 촉구한다.

☞ 광화문 외통부 앞에서 범민련 남측본부와 평통사 공동으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전면 허용,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 합의, 장관급 전략대화 결과 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참가자들은 전략대화에서 합의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인정은 한미동맹의 침략동맹으로 변질되었다며 성토했다. 참가자들은 '전략대회 공동성명'이라고 쓴 종이를 찢는 상징의식을 가졌고 이규재 범남본 의장, 오혜란 인천 평통사 공동대표, 박용일 변호사 등이 외교통상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다.

## 2 1 -----

☞ 움시통 감시통은 충남 서산의 박근직 회원 집에서 2005년을 평가결산하고 2006년을 이끌어 갈 으뜸일꾼으로 신현부 회원을 뽑았습니다. 으뜸일꾼을 도와줄 공동총무로는 이현근, 김길자, 정향숙 회원이 추천되어 만장일치로 동의, 찬성하여 확정했습니다.

## 2 2 -----

☞ 오랫동안 암 투병을 해오셨던 윤병로 회원의 아버님께서 별세하시어 미아삼거리 뉴타운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하셨습니다. 움시통 감시통 회원과 후원회원들이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고인의 장례는 23일 발인하여 이천시 부발면 선영에 모신다고 합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 2 3 -----

☞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전농, YMCA, 민연련 등 각계 노동 시민사회 단체가 모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하이스코 협약서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협약서의 이행을 촉구하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측의 협약서 즉각 이행, 협약서 체결을 중재했던 정부가 협약서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과 방안을 제출하는 등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하다.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제157차 회의에서 인혁당사건 관련자 16명(서도원, 도예중, 하재안, 송상진, 여정남, 정만진, 전재권, 이태환, 장석규, 이창복, 전창일, 강창덕, 라경일, 이재형, 김종대, 임구호)의 민주화운동 인정여부에 대한 심의를 벌여 인정 결정을 했다고 밝히다.

☞ 동국대 본관 앞에서 참여연대 박성중 대표를 비롯 윤준하 환경연합대표, 이석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회 회장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강교수의 직위해제 제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동국대 심익섭 기

획처장과 조의연 학생처장을 만나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전달하다.

☞ 청와대 부근 정부합동청사 앞에서 통일연대, 민중연대, 참여연대 등 13개 단체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 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오혜란 인천 평통사 공동대표의 사회로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의 여는 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대표,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장 등 규탄 발언과 최선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사무처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다.

☞ 제일 한국양심수동우회 주최로 제일 양심수의 어머니이셨던 고 조만조님 추모식이 1.29일 열릴예정이라는 통보를 받고 민기협 양심수후원회 이름으로 추모사를 보냈습니다. 고 조만조어머님은 민기협 공동의장과 양심수후원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시면서 제일동우 양심수 석방운동에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 2 4 -----

☞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평통사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53차 '평화군축' 집회를 열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 철회와 군사 무기 도입 반대 등 평화군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촉구하다.

☞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분사 상성 농속 농성 투쟁 10일째를 맞아 전국 금속연맹은 테헤란로 농성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① 사측의 즉각적인 대화와 직접 교섭 ② 불법파견인정, 비정규노동자의 고용보장 ③ 불법행위 자행, 우의제(하이닉스반도체 대표이사) 허염(매그나칩반도체 대표이사)에 대한 노동부감찰의 사법조치 등을 요구하다.

☞ 범문화예술인 754명으로 구성된 '들사람들'이 인사동 민족예술인총연합 문예아카데미 강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와 대추리 도두2리 주민 주거권 옹호를 위해 2006년 대추리 현장예술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열 예정이라고 하다.

## 2 5 -----

☞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추모연대, 전국연합, 범민련 남측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이 모인 가운데 '통일에국지사 김남식 선생 묘역 훼손 보수단체 만행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열다.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대표, 임방규 통일광장 대표, 이규재 범남본 의장의 규탄발언과 박종기 추모연대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마치고 박종기 대표 등은 경찰청에 묘역을 훼손한 자유넷 봉태규를 비롯한 '보수' 단체 회원 6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시키다.

●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한국정부는 북 체제에 대해서 문 제제기와 압박을 가하고 때로는 붕괴를 바라는 듯한 미국내의 일부 의 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히다.

가입 찬반투표에서 투표율 77.3%에 찬성률 70.38%로 가결하다. 전 공 노는 곧 '민주노총에 가입한다'고 밝히다.

● 서울역 광장에서 농촌정보문화센터, 전국농민연대, 한겨레 통일문화재 단 등은 25~27일까지 '북녘 어린이 겨울나기 돕기 우리농산물 큰장 터'를 열고 우리쌀 우리떡 전시 먹거리장터, 문화공연 등 다양한 볼거 리 먹거리 마당을 벌이다.

● 지난 24일 사기매각방조에 대한 정부책임을 물어 외국투기자본에 의 한 청산저지와 공장정상화를 요구하며 외교통상부에 진입했던 금속노 조 오리온전기 재해노동자 17명이 이날 모두 석방되다.

2 6 -----

● 하이닉스매그너칩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분사상경투쟁 12일째를 맞는 이날 충청북도 이원종 지사와 하이닉스 사태해결을 위한 충북 범도민 대책위 대표들이 하이닉스 우의재 사장을 만나 사태해결을 위한 중재 단을 구성기로 합의했다며 농성노동자들에게 전하고 농성을 풀고 정주 로 내려갈 것을 권유하다. 노숙 농성 노동자들은 전체 회의를 거쳐 결정 하기로 하다. 한편 이날 권오현 양심수 후원회장과 단국대 법사회학회 홍세희 학회장은 농성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노숙투쟁을 취재하다.

2 8 -----

● 일본 아소다로 외상은 이날 나고야시에서 열린 공명당의원모임에서 일왕의 야스쿠니 참배를 촉구했다고 언론들이 보도. 극우반동으로 가 는 일본의 본 모습이 드러나다.

2 9 -----

● 민족의 명절 설입니다. 새해에는 소원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고 건강하 시기를 기원합니다. 설을 맞아 세배. 준비해온 설 음식을 나누어 먹고 웃놀이 함께 하다. 김호현, 서미라, 김호, 고광희, 김한길

●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 소된 제10기 한총련 대변인 겸 의장 권한대행이었던 윤경희 학생에 게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다.

3 0 -----

● 낙성대 만남의 집에 민기협 조순덕 상임의장 방문, 문상봉, 김영식 선 생님께 새해인사를 하고 함께 점심을 먹고 웃놀이를 하다. 김은 함께.

● 국정원 과거사 진실조사위원회(위원장 오충일)는 진실위원회 회의실 에서 '동백림 사건 조사결과 발표회'를 열고 동백림 사건은 동베를린 을 오가며 북측과 단순접촉한 유학생들에게 무리하게 간첩죄를 적용 하는 등 박정희 전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과장 조작한 사건이었다고 밝히다. 또한 해외 거주자들에게 불법연행, 가혹행위, 간첩죄 확대조 작했다고 하다. 동백림 사건은 1967년 음악가 윤이상 씨, 화가 이응노 씨 등과 국내 6.3 학생 주역인 김중태 씨 등 민족민주비교연구회 등 지 식인 유학생 203명이 연루되었고 검찰에 송치된 66명 가운데 34명이 유죄판정 받았으나 간첩죄는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않았음.

● 통일연구원은 지난해 6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전국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발간을 통해 분석자료를 발표하다. 조사에 의하면 이북의 무력도발가 능성에 전체의 21.3%가 전혀없다, 35.7%가 별로없다로 57%가 도발 가능성이 없음으로, 매우많다 7.2%, 약간있다 35.8%로 43%가 도발 가능성 있다하여 도발가능성 없음이 많게 나옴.

3 1 -----

● 이란 핵개발문제와 관련 미국, 영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 라가 이날 안보리에 넘기기로 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다. 한편 이란 부 통령겸 원자력기구 의장은 반관영 ISNA와의 인터뷰에서 이란핵문제 의 안보리회부는 법적 정당성이 없다며 이번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 다 는 뜻을 분명히 하다.

2 7 -----

● 전국농민연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역 광장에서 '생명의 밥상차리 기, 우리쌀 사랑실천 운동서약운동 및 우리쌀 나눔행사'를 벌이다. 쌀 봉지를 건네받은 귀성객들은 "000은 (는) 우리의 생명 환경농업을 살리기위해 우리쌀을 더욱 사랑하고 잘 먹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하다. 이 서약 운동은 26일 명동성당에서 가진 바 있음.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3기 지도부 선거와 함께 치러진 민주노총